2021년 1월 26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12장	다 같 이
기 도		홍광진 집사
성 경 봉 독	디도서 1장 1-4절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장지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2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디도서 1:1~4>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12장 -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1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2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3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25장 -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월 27일(수) 기도 담당 : 강협수 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1월 26일(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내셔서, 이 한 날을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한 디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어디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든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새롭게 반응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우리 새문안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어머니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이 자리 잘 감당할 것이라 믿어주셔서 친히 맡겨주신 사명일텐데, 오늘도 그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교역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새문안 성경일독>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혜롭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낙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 날을 모두가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